

# 기후변화에 맞서는 양평군 토종씨앗



◇고소하고 아삭한 토종 조선배추  
“옛날 양평에서 재배한 토종배추여서인지 재배는 수월했어요. 전국에 배추농사가 큰 피해를 보았다고 하는데, 우리 토종배추는 병충해에 강해 별문제없이 자랐습니다. 기존 배추와 비교해 약간 속이 덜 찬다는 것이 흠일 뿐 배추의 식감은 아주 좋습니다.”

11월 초 지평면 송현리 4000㎡ 밭에는 한국생활개선회 양평군 연합회(회장·박성미, 이하 생활개선회)에서 지난 8월 말 심은 토종 조선배추, 구억배추와 곡성무, 황성밀갓 등이 파랗게 나올거렸다. 지역 내 토종품종 심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생활개선회 박성미 회장은 양평토종배추와 토종 무갓 등을 재배하며 느꼈던 우리토종씨앗의 우수성 자랑에 여념이 없다.

우리 토종 조선배추는 일반적으로 속이 노란 개량배추와 달리 속이 들지 않고 키도 50cm 정도로 더 크며, 속보다는 녹색 잎이 많아 비타민C나 식이섬유 등 영양소가 풍부한 특징이 있다. 얼핏 보면 개량배추와 갓의 중간 형태이다. 맛도 단맛보다는 매운맛이 강하고, 수분이 적어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다. 뿌리인 배추 고경의 맛은 일품이다.

김치를 담갔을 때 해를 넘겨도 늦게까지 푸른빛이 살아있고 아삭아삭하며 고소한 배추의 향과 맛을 유지하는 게 특징이다.

지역 내 이런 토종배추의 우수성을 알리고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최근 생활개선회는 토종배추의 맛을 살린 김장을 하기 위해 김지명인 황미선 셰프를 초청, ‘양평 조선배추 김장 담그기’ 강좌도 열었다. 강좌에 참여한 주부들은 황 셰프의 레시피에 따라 만든 배추김치의 아삭하면서도 깔끔한 맛에 감탄사를 연이어 터뜨렸다. 생활개선회 회원이기도 한 250여 주부들은 양평 조선배추로 담긴 김치로 ‘토종배추 김장축제’에 참여하고 나눔행사도 가졌다. 나머지는 ‘양평농촌나드리’ 온라인 매장을 통해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양평군이 최근 토종자원 보존 거점기반 단계에서 농업회사법인 우보농장과 나눔행사를 열고 토종배추 씨앗을 선보였다.

◀한국생활개선회 양평군연합회와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지평면 송현리 4000㎡ 규모의 밭에 심은 토종 조선배추, 구억배추.  
▼양평군 청운면 가현리 소재 ‘토종자원 보존 거점기반 단계’에서 무르익은 토종벼.



◇토종쌀 350여 종 수확… 연말 시제품 출시  
올가을 황금 들녘을 이루었던 양평군 청운면 가현리 ‘토종자원 거점단지’는 가을걷이가 막바지다. 9월 초 조생종을 시작으로 10월 말 만생종까지 총 350여종의 토종벼를 수확해 자연 건조하고 탈곡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양평에는 ‘토종자원 거점단지’ 외에도 10여 년간 토종벼 지킴이로 활동해 온 ‘우보농장’ (대표·이근이)과 협업, 12개 읍·면 20여개 농가(농가당 4000㎡)에서 매벼와 찰벼 등 총 30여 개 품종이 재배되고 있다. 이근이 대표를 비롯한 농가들은 벼씨를 채취할 목적으로 품종마다 16.5㎡ 규모로 심고 섞이지 않도록 일일이 손으로 모를 내고, 농약은 물론 화학비료나 유기질비료도 전혀 쓰지 않는 전통농법으로 재배했다.

주력 품종을 선정할 때 20여개 농가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했다. 특산물 천주교인에게는 천주도, 인제가 많이 나온 옥천면에는 용천, 동물 이름의 흑저도·쇠머리지장·늑담배, 북한 품종의 북흑조·평양·해조, 과거 양평에서 재배된 노인도·강릉찰 등을 고루 나눠 심었다. 토종쌀의 특징은 다양성과 희소성이다. 시장에서 개량종 고품질 쌀(10kg)이 4만~5만원에 판매된다면, 토종쌀은 15만~25만원으로 4~5배 높은 가격에 유통된다.

총 10만㎡ 논에서 수확한 토종벼는 특성 연구를 통해 지역적 품종을 선별, 양평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토종벼 연말 시제품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클라우드펀딩(소액개인투자) 방식으로 생산을 확대해 나갈 계획도 세우고 있다.

‘안전한 먹거리’ 양평군 토종씨앗 살리기 토종 조선배추, 구억배추, 곡성무 등 재배 전통농법 토종쌀 4~5배 높은 가격에도 인기 내년 클라우드펀딩 방식 생산 확대 계획

이 대표도 토종 품종에 대한 자량이 이어진다. “품종마다 고유 맛이 있고 색과 모양이 다릅니다. 또 저마다 독특한 유래가 있어 이야기하는 재미가 있어요. 게다가 그 쓰임도 모두 다릅니다.” 토종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다 보니 재구매율도 높다.

◇미래 100년 먹거리, 양평군의 ‘천년씨앗 백년티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며 어느 때보다 ‘면역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네 식단은 유전자 변이 농산물과 각종 화학물이 첨가된 ‘초가공 식품’이 점유한 지 오래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가족의 건강을 위해 먹거리만큼은 안전하고 가능하면 더 영양이 높은 특별한 것을 찾고 있다. 이런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양평군은 수년 전부터 토종씨앗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이렇게 말한다. “1910년 일제강점기 이후 토종씨앗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면,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다국적기업들이 한국의 종자회사를 대거 인수하면서 우리의 종자 주권이 사라졌다고 본다. 이를 되찾기 위해 양평군에서는 우리 땅에서 수백 년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이겨낸 38개 작물 67 품종 198점의 토종 씨앗을 구해 이를 재배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양평군은 각종 증복지제 속에 자구책으로 1998년 친환경 농업을 선택한 이후, 2005년 전국 최초로 ‘친환경 농업특구’로 지정되며 20여년간 친환경 농업의 선구자 역할을 해오고 있다.

정 군수는 2018년부터 토종 씨앗의 발굴과 보급부터 생산, 가공, 유통까지 아우르는 ‘토종자원클러스터’ 기반을 구축해 양평군 친환경농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는 “우리에게는 친환경 인증 농가 1천477가구가 있다. 토종 씨앗만 있으면 언제든지 바로 전환이 가능하다. 코로나19라는 것이 결국 면역력 싸움이라면 우리는 다양한 토종 농산물만 만들면 된다. 이젠 100세까지 살려면 양평 농산물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양평군은 ‘토종자원클러스터’ 거점단지를 통해 토종 농산물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 ‘말뭉치 양평’과 함께 토종 종자 이름을 ‘천년씨앗 백년티움’이라 정하고 사업을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경인일보·양동민기자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